

타이완 공공지식인에 관한 연구 - 해바라기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이광수(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목차

들어가는 글

해바라기 학생운동(학운)

해바라기 학생운동 참여단체

타이완 공공지식인의 평가

결론

1. 들어가는 글

1.1 최근의 타이완 지방선거 결과

12월 3일 중화민국의 마잉지우(马英九) 총통이 국민당의 주석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행정부의 2인자인 장이화(江宜桦) 행정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야당인 민진당의 전임 행정원장 셰창팅(谢长廷)은 2일 타이완 연합만보에서 “국민당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8년은 걸릴 듯 하다”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입은 충격의 정도를 언급했다. 타이완 신문들은 이제 마총통은 남은 2년여의 임기동안 별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을 것이며, 총통 자리만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심지어 2016년에 있을 예정인 차기 입법원 선거나 총통 선거에서도 국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설부른(?) 관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1월 29일 치러진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현 마잉지우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이 1949년 이래 집권해 오면서 가장 큰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공직자들을 뽑는 지방선거이지만, 직할시장 6명, 현·시장 16명, 향·진시장 198명 외에 직할시, 현시, 향진시의 의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1만 여명 이상의 지방공직자를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였다. 1994년 성·시장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직접투표로 진행되는 지방자치선거로서 이른바 타이완인들의 정치적 선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타이완 유권자들이 2012년 이후 마잉지우 총통의 2기 집권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준 것이다.

불과 2년 만에 정국이 180도 바뀐 것이다. 2012년 연초에는 국민당이 입법원 선거에서 전체 113석 중 65석을 차지하여 민진당의 38석에 비해 훨씬 많은 의석을 점유하여,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총통선거에서도 마잉지우가 민진당 후보를 이겨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으로써 국민당의 전통적인 통일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해 마총통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야기된 타이완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양안간의 경제, 교통, 통신의 교류를 더욱 개방하고 확대하는 ‘신3통’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야당의 동의와 다수 타이완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비판세력과 소통을 하지 않는 독불장군식의 권력자로서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마잉지우 총통과 국민당의 선거 패배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올해 1월에는 화인(華人) 공공지식인 난팡쑤(南方朔)가 명보(明報)에 2013년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한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이 타이완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이익을 담보로 거대 자본과 정치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과의 정쟁으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등 마잉지우 정권의 지지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거가 치러지기까지는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국민당이 만회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마잉지우 총통과 국민당의 실책은 계속되었다.

타이완의 선거결과는 민주주의를 향한 지식인들의 선언과 대학생들의 행동이 단초가 되었다. 입법원 회의에서 국민당의 대표가 30초 만에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행위에 항의하면서 대학생들에 의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양안의 경제협력협정과 같은 중요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밀실 서비스무역협정 반대운동’(反黑箱服贸运动)이라고 한 이 사건은 참가 학생들이 밝고 따뜻한 타이완의 미래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한 송이 한 송이 해바라기를 들고 있다고 하여, ‘해바라기 학생운동’이라고도 한다.

이 운동은 올해 3월 18부터 4월 10일까지 대학생들이 입법원과 행정원을 점거하면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EC)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자체 해산을 결정한 학생운동세력들은 장기적으로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하여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예를 들면 주요 조직이었던 흑색도국청년전선(黑色島國青年陣線)은 해바라기 학운이 종료된 이후 ‘도국전진(島國前進)’을 결성하여,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타이완에 불리한 영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검정 셔츠를 입고서는 타이완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각지를 순회하면서, 문화공연과 토론회를 조직하여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의 불리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반대서명운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SNS와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의 활동내용과 시민들의 반응을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고자 했다.

1.2 문제제기

타이완의 학생운동(학운)은 정치적 분기점 역할을 해 왔다. 1990년 리덩훤이 총통 시기에 발생한 ‘야생백합학운’은 국민대회 해산, 반란평정기 임시조치 폐지, 국시회의(国是会议) 개최, 정치경제개혁 일정표 제시 등 fml 제반 정치개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당 일당 독재체제를 종식시켰다. 또한 2008년 마잉지우 총통의 중국 접근 정책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산딸기 학운’은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주임 천원린(陈云林)의 타이완방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국민당 정부의 강압적인 집회해산에 맞서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산딸기 학운 참가자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정보교류와 유대를 계속해 오면서 2014년 해바라기 학운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해바라기 학운의 다수 참여자들은 교수, 학자 등 지식인과 젊은 청년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도대오를 구축하고, 비폭력 평화적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facebook 등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외부 지원세력과 대중과의 접촉을 유지하고자 했다.

해바라기 학운 지도자들은 지식인과 학생들이 각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학생운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행동했다.

해바라기 학운은 이념적, 민족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홍콩 우산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 글의 목적은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주요 참여단체,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타이완의 공

민운동의 현황을 이해하고, 홍콩과 중국의 공민운동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2. 해바라기 학생운동

2.1 발생배경: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의 날치기 통과

- 2010년 6월 29일 타이완정부는 양안경제무역 강화를 위해서 양안사이의 역사적인 '해협양안경제합작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고, ECFA 제4조의 '서비스 무역'규정에 의거하여 타이완과 대륙은 서비스무역의 조기 성과를 얻기 위해서 ECFA 효력 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보다 진일보한 제도화 규범을 위해서 양안 양측의 서비스제공자의 권익 보장과 교류협력과 시장규모의 확대를 위해 제한 조항들을 축소시켜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21일에 양안의 전국인대와 입법원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을 통과시켰다.

- 서비스 무역협정은 타이완정부가 타이완경제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절대 안전하다고 역설했으나,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잡화, 요식업, 문구, 안경, 금은 액세서리, 운동용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복, 서점 등 수천종에 걸친 소비재 산업 전반에서 대륙중국인들이 타이완에서 자유로이 개업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였다.

- 2014년 3월 17일 오후 2시 30분 장칭종(張慶忠) 국민당 입법위원이 동료 위원들의 엄호아래 의장석에서 개회를 선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민진당 위원들의 방해로 의사일정을 정상 진행할 수 없었다. 때문에 10여분 후에 회의실 뒤쪽으로 이동하여 무선마이크를 통해 개회를 선포하고,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입법원 송부 기한인 3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이미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입법원이 보관한다."고 선언하였다. 불과 30여초의 시간을 사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시민학생들이 통과무효를 주장하고 입법원으로 모여들면서 해바라기 학운이 시작되었다.

2.2 해바라기 학운의 요구사항

해바라기 학운은 1990년 야백합 운동, 2008년 산딸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타이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에 걸쳐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농성해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① 서비스 무역협정을 행정원으로 돌려보낼 것, ② 양안 협정 감독시스템을 만들어, 심사할 것, ③ 양안협정의 감독시스템은 공민의 참여 보장, 인권 보장, 공개 심사,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국회의 철저한 감독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만들 것. ④ 헌정체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양안관계 법률적 기초, 사회정의와 인권보장, 경제정책과 시대적 정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민헌정회(公民主憲政會)를 개최할 것 ⑤ 입법원은 민의를 경청하고, 당의 의사만 따르지 말며, 정당이 당기 처분(당명)을 통해 입법위원의 투표를 간섭하지 말 것.

2.3 해바라기 학운 종료 이후의 후속 투쟁

- 학운의 성과 기초 위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연합조직 건설하였는데, 민주흑조학생연맹(民主黑潮學生聯盟), 민주강당(民主講堂), 민주투쟁전선(民主斗陣) 등을 조직하여, 공민참여, 민주법치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민중에게 전파하여 자아교육, 자아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

부의 밀실협상이나 무능하고 부패한 입법위원회에 대한 탄핵 운동을 시도하였다. 이른바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호크아이(HawkEye)’ 게임캐릭터를 명칭으로 차용한 방성조괘섬계획(仿声鸟快闪计划)이 있으며, 실제 국민당 입법위원 세 명을 대상으로 탄핵운동을 벌인 부패위원 축출 계획(割阑尾计划)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하여, 일반 독자, 시청자들이 진실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듣고 보도록 한다는 운동으로서 불공정 보도와 프로그램을 NCC(국가통신전파위원회)나 관련 미디어 윤리 심사기구 및 NGO에 신고 또는 제소하는 것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종양 제거 계획(割肿瘤计划)이 전개되었다.

이중 발기인은 린페이판, 천웨이팅 등 학운의 주요 참가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도국전진(岛国前进)은 타이완 전역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무역협정의 부족한 내용을 홍보하고,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패배하고 민진당 등 야권이 승리하는 데 일조했다.

3. 해바라기 학생운동 참여단체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학생들 이외에 시민, 노동자, 농민, 교수, 여성 등 타이완의 다양한 사회계층과 부문이 참가한 시민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주진보당, 타이완단결연맹, 친민당, 녹색당, 인민민주전선 등의 정당조직도 정당 대표들이 지지농성을 하는 등 동참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3.1 학생조직

- 흑색도국청년전선, 미디어공룡 반대청년연맹, 타이완대학 연구생협회 등
- 흑색도국청년전선: 약칭 흑도청, 타이완학생운동단체로서 2013년에 결성. 서비스무역협정 반대를 위해 타이완대, 청화대, 성공대, 정치대, 사범대, 보인대 등의 학생들이 구성한 대학 연합조직으로서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주요 지도조직이다.

3.2 사회단체(인권, 노동, 교수, 환경보호, 여성단체 등)

- 공민1985행동연맹, 타이완인권촉진회, 공투보호타이완연맹, 지구공민기금회, 녹색공민행동연맹, 타이완농촌전선, 타이완노동전선, 타이완교수협회, 인본교육문교기금회, 서비스무역비밀협정 반대 행동연맹, 타이완수호 민주플랫폼, 부녀신지기금회, 청평대기금회, PLURS 전음박핵전선, 타이완친자공학교육촉진회 등 인권, 정치, 환경보호, 농촌, 노동, 학술, 여성, 교육 등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하였다.
- 공민1985행동연맹: 2013년 7월 타이완 육군에서 발생한 병사 학대 사건(홍중치우(洪仲丘)사건)으로 결성된 공민단체, 군대 폭행 사건의 진상 조사와 인권 존중을 요구하면서 2주동안에 걸쳐 수십 만 명이 항의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시위는 타이완의 과거 사회운동의 동원모델을 바꿔서 일반 민중이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참여한 시위를 조직한 새로운 형태로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타이완판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리웠다. 이 시위를 주도한 시민가운데 39명이 발기인으로 창립한 민간단체로서 ‘공민1985행동연맹’이름으로 군대 관련 법률의 수정을 감시하고 피해 가족을 돕는 일 이외에 공민의 권리를 자각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공투보호타이완연맹: 국민투표법 수정을 주장하는 사회단체, 2008년 11월 2일 타이완교수협회의 차이딩구이(蔡丁贵)교수가 발기하고, 동참자가 함께하면서 양안감독조례, 입법위원선거

제도 합리화, 새장식 국민투표법 수정을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2008년 10월 25일부터 대표인 차이교수는 입법원 입구에서 정좌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2014년 4월 말 현재 이미 2,000일이 지났다.

- 지구공민기금회와 녹색공민행동연맹(약칭 녹색맹) 환경보호단체이다.
- 타이완농촌전선: 약칭 농전, 타이완의 농촌문제에 관심 있는 농민, 농촌활동가, NGO, 언론인, 학자, 작가, 법률가, 공정사, 예술가, 학생 등을 연결하여 형성된 사회집단네트워크이다. 농촌의 발전, 토지 효율적 운영, 환경 정의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 인본교육문교기금회: 계엄 해제 직후에 타이완의 교육개혁을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이다. 주요 활동은 강연, 연수, 캠프 활동 조직을 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시에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에 투고하거나 사법기관에 진정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타이완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 타이완노동전선(台灣勞工陣線): 타이완의 노동운동조직 중의 하나로서, 노전의 주요 활동 목표는 정치민주화에서 산업민주화의 실현을 추구한다. 정치적으로 노전은 비교적 민진당에 우호적이며, 타이완독립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타이완인권촉진회(台灣人權促進會): 약칭은 대권회(TAHR)로도 불리며, 타이완의 인권조직 중의 하나로서 1984년에 만들어졌다. 인권변호사 라이종창이 부회장을 역임했다.
- 타이완교수협회(台灣教授協會): 약칭은 대교회(TAUP)이며, 1990년 창립되었다. 학술계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타이완독립운동을 목표로 하고, 사회운동을 지지성원한다. 비정기적으로 좌담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치민주화, 학술자유, 사회정의, 경제공평, 문화제창, 환경보호를 활동내용으로 하는 사회단체이다.

4. 타이완 공공지식인의 평가

해바라기 학생운동에 대한 지식인의 시각은 타이완과 홍콩의 지식인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타이완의 유명 작가이자 TV프로그램 사회자이기도 한 양자오(楊照)는 “서비스 무역협정은 긴급한 일을 서둘러 처리하듯이 해서는 안되며, 서비스 무역협정 반대 행위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글을 2014년 4월 2일에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緊事寬辦)라는 민남지방 속담을 소개하면서 서비스 무역협정과 관련한 타이완의 각 정파와 민중의 반대운동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나타냈다.

중요한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상황은 타이완입법원에서 국민당 입법위원인 장칭종이 불과 30초만에 ‘심사종료’를 선언하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무역협정은 마인지우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대폭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자오는 존 롤즈와 한나 아렌트의 ‘공민불복종’과 독일 기본법의 ‘공민저항권’을 제시하면서 현재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해바라기 학운이 바로 공민불복종 운동의 사례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 89년 천안문사건의 주요 지도자였던 왕단은 현재 타이완 청화대 교수로 있으면서 <공공지식분자>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4년 7월호를 ‘해바라기 학운 전제’판으로 출판했다. 그는 이 잡지에 실은 글 ‘여섯 가지를 평가하다’에서 해바라기 학운 참여자 가운데 다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젊은 청년학생들이었다는 것이 가장 놀랄만한 일

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점거농성 지도자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떨친 린페이판(林飞帆)은 1988년생의 대만대의 석사생이고, 청화대의 석사생이던 천웨이팅(陈为廷)은 1990년, 웨이양(魏扬)은 1988년생이다. 또한 세신대 석사생인 천팅하오(陈廷豪) 역시 1989년생이다. 지도부 학생들이 대부분 약관의 나이인 20대 중반에 불과했다. 한편 학운 지도부는 2008년도의 산딸기 운동, 언론자유운동, 환경보호운동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였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해바라기 학운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왕단은 가두운동도 민주제도라고 천명하면서, 중국 근대 시기에 처음 발생한 학생운동인 '5.4' 운동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이어진 '신문화운동'을 통해 후쓰, 천두시우, 루션 등에 의해 민주와 과학의 이념이 문학, 사상, 과학 분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해바라기 학운도 이후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치관 정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운동, 즉 문화부흥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결론

-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타나자, 지난 9월 26일부터 2017년 홍콩 행정장관선거에서의 시민 추천권을 요구하며 도심지역인 센트럴을 점거하면서 시작된 홍콩의 학생시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민족적 통합과 영토적 통일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한족과 55개에 걸친 소수민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중화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신장 위구르족, 티벳 장족 뿐만 아니라 동북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족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중국, 타이완, 홍콩을 묶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식을 통해 영토적 통일을 지향해 가고 있다.

- 중국의 유명 작가이자 공공지식인 샤오슈(笑蜀)는 2014년 4월 7일 “공민사회공동체로 새로운 독재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글에서 양안 세 곳 즉 타이완, 홍콩, 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공민운동의 뜨거운 조류가 중국이 문명세계로 발전하도록 촉진시킬 것으로 보았다.

타이완에서는 3월 30일 5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해바라기 학운의 정점을 찍었으며, 3월 29일에는 홍콩의 범민주진영이 중환(센트럴)에서 단식행동을 전개하고, 행정장관 선거의 보통 선거 원칙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를 표명했고, 단식단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 정신은 굳건하며, 시민들이 의지를 한데 모아 단결한다면, 계란도 높다란 벽에 저항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거의 동시에 평화중환점령문화살롱이 홍콩의 구룡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일의제는 바로 타이완의 해바라기 학운이었다.

또한 3월 29일 SNS에서는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변론을 위해 갔던 왕청(王成), 탕지텐(唐吉田), 장텐용(江天勇) 등 인권변호사들이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왕, 탕, 장은 지난해 창설된 인권변호사단체의 발기인들이다. 그러나 인권수호자들에 의해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불법 구금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자 4월 5일 헤이룽장성 쟈산장(建三江)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세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언급했다.

샤오슈는 세 지역의 공민운동이 비록 상호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같은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선 공민의 비폭력 항쟁 행위를 보여준 사례이며, 중국, 타이완, 홍콩의 공민사회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콩에서는 덩샤오핑이 보장했다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인의 자치(港人治港) 원칙을 요구하

는 홍콩 시민·대학생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타이완에서는 중국의 흡수통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타이완시민·대학생들의 양안 경제협력반대와 타이완독립 분위기 확대라는 장애에 부딪쳐 있는 형세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 이후 형성된 사회적 전환기에서 국민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산당과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정치적 안정, 민족적 통합, 영토적 통일을 추구하는 현재, 향후 대학생과 시민들에 의한 공민세력의 부상이 중화권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